

한국문화에서의 부부상담: 현실역동 상담접근*

장 성 숙†

가톨릭대학교

가족을 중시하던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담자들이 부부를 상담할 때 서구에서 발전된 가족 및 부부 상담이론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문화는 무교, 불교, 유교와 같은 종교의 영향아래 독특한 가족주의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 서양문화의 가치를 반영하는 기존의 주요 상담접근으로는 충분한 상담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사회에는 서양의 핵가족 형태인 부부중심 가족관계와는 달리 전통적으로 가계를 잇기 위한 혈통을 중시하고, 자녀교육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며, 장유유서와 같은 서열을 강조하는 부자(父子)중심의 가족관계가 팽배해 있다. 이러한 문화권에서는 상담자가 개인 자체에 역점을 두며 부부간의 친밀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자중심의 가족관계 관점에서 자신의 위치에 따른 역할을 살펴보고도록 초점 맞추는 필요가 있다.

주요어 : 가족주의, 부부중심, 부자중심, 개인, 역할

* 이 연구논문은 2006 학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에 의함

† 교신저자 : 장성숙,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 43-1

E-mail : changss312@hanmail.net

다변화를 특색으로 하는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자극과 변화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다양한 가치 속에서 원만한 적응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구나 결혼으로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두 개체가 만나 원만한 가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고도의 관계기술을 필요로 한다.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닌 두 사람이 상호존중하며 상대방의 특성 및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을 중시하는 우리 전통의 영향으로 보수적 결혼관을 지녀왔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에 이르러 법원에 접수된 이혼 관련 사건은 한해에 20만 건 정도나 된다고 한다. 이 정도로 많은 가정이 해체되는 현상을 보이자, 이것을 막아 보자는 취지 아래 근래에는 '이혼숙려 기간'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부부가 이혼을하기로 합의한 뒤 판사에게 법적확인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협의이혼' 제도를 좀 더 엄격하게 강화하자는 것이다. 즉 이혼에 대한 법적확인을 구하기 전에 최소한 몇 회에 해당하는 상담을 부부가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법규다. 가정해체에 따른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 보다 심사숙고하게끔 하는 이런 제도는 매우 의의 있다고 본다.

상담 및 심리치료는 전통적으로 성장이나 적응을 위해 한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전문작업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리하여 상담에서는 대상이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가족이든, 부부이든 대체로 그 대상을 독립된 개체로 성장시켜 자율성을 확보하게끔 돕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런데 적응적인 인간관계를 이룩

하도록 도모하는 이러한 상담이론 및 접근들은 서구사회에서 개발된 것들로 그 문화나 가치를 반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 상담자들은 서구에서 개발된 상담접근법들을 아무런 변형 없이 거의 그대로 우리 문화에 이식시켜왔다. 그러한 배경에는 '기본적인 욕구나 동기에서 사람들은 동일하고, 이러한 동일성에 근거해 만들어진 상담이론은 보편적인 원리로 구성되어있다'라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고 동기화 하는 가치관은 문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문화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상담접근은 한계를 지니게 마련이다. 더구나 적응이라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담자는 관계에 놓여 있는 각 개인이 지닌 배경의 차이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각자가 지닌 문화차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부를 대상으로 상담할 경우, 광의적이든 협의적이든 문화변인에 대한 이해 없이는 흡족할 만한 상담성과를 얻기가 어렵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차이

문화의 영향에 대한 탐구는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문제로 부상되어있다(Matsumoto, 2000). 문화는 인간행동의 산물인 동시에 인간행동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관심을 확산시킨 대표적인 개념은 Hofstede(1980, 1991)가 제시한 집단주의-개인주의(collectivism-individualism)의 분류체계이다(Miller, 2002; Oyserman, Coon, & Kimmelmeier, 2002). 이것은 117,000 명에 해당되는 IBM 사

원들의 자료를 요인 분석해 국가들을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개인주의, 남성성이라는 4가지 차원으로 분류한데서 비롯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사회의 구성단위를 독립적인 개인으로 보느냐 아니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가족과 같은 일차집단으로 보느냐 하는 입장을 제공하는 이러한 분류 체계는 도전을 받고 있다. 즉 개인주의 개념은 서양인들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서양인의 행동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집단주의에 대한 설명개념은 적절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분류가 문화차이를 대비시켜주는 것으로 심리학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유용한 개념임에 틀림없다(Triandis, 1995).

세계가 일일 권으로 좁혀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서구화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집단주의적 속성이 많이 존재한다. 동서양에서 집단주의적 현상과 개인주의적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본다.

유럽-북미 문화권

북미-유럽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력에 의한 성공과 성취를 강조하며,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에 가치를 둔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통제력과 책임을 갖고, 자기실현과 자기만족을 위해 노력하며, 환경 및 집단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고자 한다(Fisk, Kitayama, Markus, & Nisbett, 1998).

이러한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타인의 승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 자체에 비중을 두기보다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른 합리적 선택이나 행동의 목표지향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자유주의 전통이 발달되어있다. 특히 이러한 사회에

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개인의 자아신장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 만약 한 개인의 권리가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성적 판단에 의해 자기 이익을 위한 행동을 취하고자 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규범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서구사회는 최소한의 규범으로 공정 및 정의(justice) 사상을 발달시켰다(한규석, 2002).

동아시아 문화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인간을 주위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회적 존재로 파악한다. 특히 동북아시아에 지대한 영향을 준 유교사상에서는 인간을 추상적이고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관계맺음에서나 존재하는 구체적인 관계자로 규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에서는 관계 속에서의 조화와 사회성의 실현을 인간발달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관계윤리의 핵심인 오륜(五倫)을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각각의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덕목을 제시하며, 그것의 실현을 위해 규범과 역할 및 상황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한다. 즉, 바람직한 인격체는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도록 통제하는 능력을 지니며 주위와 화합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는 생활의 기본단위가 개인보다 집단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보다는 관계에서 필요한 의무와 도리가 우선시 되고, 자신을 우위에 두는 개별적 행위보다는 공동체

의 이익을 강조하는 사회윤리가 팽배해 있다.

종교와 한국문화

일반적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을 집단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다양한 집단에 대하여 차별성을 두기 때문에 집단과 개인이 충돌할 때 집단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는 집단주의 특징을 일관성 있게 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우리 문화에서 관계성립은 인연이나 팔자 같은 요소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상대와의 관계가 비자발적이고 영속적인 경향을 보이곤 한다. 그리고 교류는 개인의 성향보다 개인의 역할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경향이 강하며, 개인의 정체성은 자신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망과 그 망 속의 위치에 의해 정의된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사회는 집단을 위주로 하는 전형적인 집단주의라기보다 관계중심의 집단주의라고 한다(한규석, 2002).

관계주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가장 근간이 되는 특성은 무엇보다 혈연에 기초한 가족주의라고 볼 수 있다. 집단의 최소 단위인 가족에서 한국인은 연고주의, 서열주의, 인정주의, 현세주의 등과 같은 우리사회 특유의 속성을 발달시켜왔다(최상진, 2000). 그런데 이러한 가족주의의 형성은 종교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 문화형성에 핵심이 되는 가치관 형성은 대체로 종교의 몫이라고 보기 때문이다(최준식, 1998).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친 종교는 무교(무속), 불교, 유교·유학, 기독교를 꼽을 수 있다. 이 중에서 기독교는 자유, 평등, 등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사회에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어 사람들의 인권회복에 크게 기여했지만, 비교적 신종교로서 아직 여러 면에서 우리 전통과의 융화를 숙제로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즉 한국 근대사회에서 서구의 영향력과 함께 기독교가 전래되어 우리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지만, 우리문화 속에 내재된 기독교의 영향력에 대하여서는 아직 토착화 문제가 미결로 남아있어 거론하기에 좀 이른 감이 있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우리의 주요 종교로서 무교, 불교, 유교가 남긴 영향을 간략히 살펴해보도록 한다.

무교의 영향

우리의 토속종교로서 무속은 문화의 심층에서 한국인의 삶에 비제도적이고 자연적인 방식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속 또는 무교는 서양식 모델에 따른 현대화의 추진에 의해 미신으로 간주되어 타과 대상이 되고 말았다(박일영, 1999). 그리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가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무속을 가까이 하면서도 떳떳하지 못한 느낌을 갖곤 한다. 그렇지만 요즈음 오랫동안 홀대를 받아왔던 우리의 토속신앙 무속이 고유문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10명중 4명이 점복인을 찾을 정도로 새로이 번성하는 추세에 있다(조용현, 2002). 수많은 사람들이 무속으로 회귀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사람들은 한국문화의 핵심적 정신이 무속적이기 때문이라든가(Kim, 1991), 또는 첨예한 합리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초합리적인 이탈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리기도 한다.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든 아니든 무속에 대한 관심이 특히, 신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 우리문화의 근간이 되는 가족주의는 유교가 유입되기 이전부터 있어왔던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라는 주장을 한다(홍일식, 1996). 특히 우리의 가족주의는 무엇보다 혈연을 중시하는 무속적인 문화에 그 뿌리를 두면서 우리문화의 기층을 이루고 있다. 무속의 영향에 기인한 우리사회의 현상은 가족의 확대개념으로 조상숭배, 자손을 통해 삶이 이어진다는 종족적 부활의식(신월균, 1996), 번영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불사하겠다는 현세중심, 논리와 합리를 넘어서는 원용적 조화, 삶에 활력소를 불어넣는 난장성(황금중, 2002), 주변적인 삶과 죽음에 대해 강한 연민 등이 있다.

불교의 영향

불교에서는 현상을 고정되거나 불변한 것으로 보는 미망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상호의존적인 관계임을 깨달아 현실세계로부터 뛰어넘을 것을 강조하는 상당히 초월적인 색채를 띤 종교다(윤호균, 2001). 즉 불교는 무엇보다 내세관이 분명한 고급종교로서 초월중심의 사상을 펼쳐왔다. 북방불교로 일컬어지는 대승적 사상을 담은 한국불교는 현세적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져 융화된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인과응보를 의미하는 업 사상이라든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속된 하나로 묶는 윤회사상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러한 영향아래 사람들은 어떤 사태 앞에서 비교적 탄력적인 태도를 취하며 팔자나 인연과 같은 개념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순환의 원리를 믿으며 보다 유연하면서도 끈기 있는 생활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본다. 그리하여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불교도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업에 근거한 숙명론을 받아들이는 편이다.

유교의 영향

유학은 조선조에 이르러 국가경영의 최고이념이 되면서 우리나라 정신사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었다. 그 결과 유학의 가르침은 일반인의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한 조사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이 유교적 행동과 습성을 유지하는 편이라고 한다(교병익, 1996). 문화의 심층에서 영향을 미친 무교와는 달리 유교사상은 특히 남성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합리성, 질서성, 체계성, 권위성과 같은 속성을 펼쳐면서 한국문화의 표층에서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중추역할을 해왔다(이광세, 1998a; 황금중, 2002). 이러한 유학은 특히 사회성(인간의 상호의존성)과 도덕성(타인에 대한 관심, 배려, 헌신)을 회복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현실세계에서 사람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중시했다(조공호, 2003). 즉 유학에서는 인간존재의 의미를 개별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찾는 것이라고 하며, 사회를 구성하는 단위로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붕의 등의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설정하면서 각 관계에 내재한 친(親), 의(義), 별(別), 서(序), 신(信)과 같은 질서 확립이 사회행위의 목표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질서 및 조화는 쌍무적인 역할을 통해 달성된다고 여겨 우리 문화에서는 각 개인의 권리보다 역할이 강조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무엇보다 관계당사자들 사이의 연계성이나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하게 간주된다.

한국문화 및 가족관계의 특성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성격을 형성하며 기본적인 사회화를 이룩한다. 그리하여 가족제도 및 가족관계는 한 집단의 문화화의 요체임과 동시에, 한 집단의 생활양식과 가치적인 물질문화를 이해하는 첩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한성열, 2005). 특히 우리사회의 문화특성은 개인보다 혈연집단인 가족이 우선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가족이 개인의 욕구충족과 보상의 원천이며, 적절한 행위에 대한 규범 등을 제공한다. 즉 한국인들은 가족에게 종교에 가까운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며 한국인 특유의 가족주의를 발달시켰다.

그런데 근세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를 거듭해왔다. 국가가 시장경제로 팽창하는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젊은 세대는 직업을 찾아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고, 남성의 노동은 사회적인 임금노동으로 여성의 노동은 가사노동으로 이분화되는 구조가 형성되자 우리나라에서도 부부중심의 핵가족화 현상이 나타났다(함인회, 2001). 그리하여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는 핵가족에 대한 이상이 생겨났고, 결혼에 있어 낭만적 사랑이 강조되었으며, 민주주의적 의사결정방식의 채택과 함께 남편과 아내는 평등한 관계로 변화되고, 자녀의 양육도 대를 잇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부부의 정서적 욕구충족과 관련된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더 커지고 있다(옥선화, 1998).

이렇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물결 속에서 사람들의 삶은 항구성 내지는 확실성을 잃어가고 있는데 가족관계도 예외는 아니다. 전통적으로 부자중심의 가족관계를 이루면서 부부

간의 친밀성보다는 자녀의 양육을 중시했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혼율을 보였었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법원행정처의 보고(2004)에 따르면 상당히 보수적인 결혼관을 지녀왔던 우리나라에서도 한해에 20만 건 정도나 되는 이혼 관련 사건이 접수될 정도로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 이혼율이 매년 10%대의 급격한 증가를 보여 이제는 결혼한 부부 11쌍 중 1쌍 정도가 헤어져 9.3%의 이혼율을 나타낸다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가정해체로부터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는 직계가족 수준의 가족주의 위에 서양의 부부중심 핵가족 형태가 유입되면서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송성자, 2005).

부부중심의 생활이 증가한다고 하여 한국의 가족구조를 기존의 혈연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생활하는 서양의 핵가족 형태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비록 가장이 지녔던 권위가 약해지면서 가족의 중심축이 부자중심의 관계에서 부부중심의 관계로 이동하기는 했으나,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족제도가 서양사회와 동일한 핵가족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서구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우리 특유의 가족주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족주의로부터 실제 어떤 현상들이 전개되는지 살펴본다.

첫째, 다른 무엇보다 혈통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을 섬기고 자손을 위해 헌신하는 문화를 발달시켰다. 이렇게 혈연에 대한 애착이 강조되다보니, 자신의 핏줄이 아닌 아이들의 입양을 꺼린다. 그리고 정반대로 자녀를 둔 상태에서는 재혼이 어려워지자 도리어 자녀를 유기하는 극단적인 현상까지 표출한다.

둘째, 우리사회에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부간의 애정보다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우느냐하는 문제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부모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현상은 한국인들에게 전혀 낯선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자녀만큼은 최상의 교육을 시키겠다는 부모들의 열의가 오늘날 한국의 경제기적을 이루어낸 원동력이기도 하다. 아무튼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헌신하는 것에 부응하는 것으로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는 가족윤리 즉, 부자유친성이 우리사회에서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개인주의화 되어있을 것 같은 중 고등학교 학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를 부모님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서라고 답할 정도로 우리사회에서는 여전히 부모와 자녀간의 유대가 끈끈한 편이다(김의철, 박영신, 2004).

셋째,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장유유서와 같은 권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 무엇보다 관심을 갖는 것이 상대방의 연령이다. 직접 나이를 묻기가 어려우면, 학번을 따져서라도 서열을 정해 자신이 어떻게 처신할지에 대한 답을 얻은 후에야 안심을 한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연장자에 대한 예우가 강조되며, 나이 든 사람 역시 어른으로서의 역할 및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주요 부부 및 가족치료 접근

관계주의에서도 특히, 가족주의적 특색을 나타내는 우리나라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나름대로의 문화특수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문화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인들에게 기존의 상담이론 및 접근을 실시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기존의 주요 상담접근들은 서구사회의 개인주의적인 가치를 담고 있어 주로 부부간의 친밀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점점 우리나라에도 부부중심의 가족문화가 확산되고는 있지만, 우리의 가족형태는 결혼이후에도 부모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서양식의 부부중심 핵가족과는 다른 직계가족 형태이다.

오늘날 주로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가족 및 부부치료 이론들은 정신역동적(대상관계적) 접근이론, Satir의 접근이론, Bowen의 접근이론, 구조적/전략적 접근이론(Minuchin, Haley)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부부중심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들이지,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혈통위주의 가족주의 가치에 부합되는 것들이 아니다.

정신역동적(대상관계적) 가족치료

개인을 가족에게서 분리시켜 성장시키고자 하는 이 접근에서는 아동기에 때 겪은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한 부부관계에서 기능하는 자율, 애착, 책임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개인의 능력을 결정한다고 본다. 즉 부부는 상대방을 투사의 일차 표적으로 삼게 되는데, 이러한 투사의 상호작용이 부부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부부 각자가 갈등의 주 원인인 원가족과의 경험을 되돌아봄으로써 본래의 갈등에 대한 통찰을 얻고, 상대방을 과거의 반영이 아닌 현재의 실체로서 대하도록 돕는다. 대상관계이론 역시 인간을 욕구충족을 추구하는 자로서 라기보다 관계대상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파악

하며 분리와 독립을 강조한다.

Satir의 가족치료

가족치료의 대중화에 많은 기여를 한 Satir는 가족의 미성숙한 태도, 역기능적 의사소통, 낮은 자존감, 억압된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정직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훈련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녀에 따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일정한 방식이나 역할 또는 행동양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로 크게 네 종류(위로자, 비난자, 계산자, 혼란자)로 나누어진다. 이들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가족조각이라는 기법을 사용해 가족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행동양식을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서로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대화하도록 만든다. 그런데 눈치문화를 발달시키면서 고 맥락적 대화를 많이 하는 한국인들에게 개방적인 의사소통 즉, 표현적인 대화 자체가 때에 따라서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

Bowen 가족치료

정신역동적 접근의 한 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이 이론은 체계의 한 부분(원가족)의 변화가 체계의 다른 부분(핵가족)에서 나타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하여 이 이론에서는 부부갈등의 원인이 원가족과의 분화 정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부부치료의 목표는 배우자 각자에게 가능한 한 원가족과의 높은 분화수준을 이룩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 때 자기분화는 내적으로 자유로워지고 만족한 인간관계를 위해 평생 동안 추구하는 과제로 간주된다. 이러한 Bowen 이론은 결속을 다지며 헌신하는 우리사회의 가치와 자

칫 충돌할 여지를 갖고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구조적/전략적 가족치료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과 Haley의 전략적 가족치료 이론 모두는 과거보다는 현재 즉, 현시점에서의 개선방안에 역점을 두는 상담접근들이다. 구조적 이론에서는 가족 구성원간의 경계선을 확립함으로써 가족구조를 변화시키는데 관심을 갖고, 전략적 이론에서는 가족 및 부부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위계상의 불균형에 대한 변화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적용 시에 이 둘은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 두 치료법에서는 부부를 가족체계의 부분으로 개념화하고 상담자가 보다 목표지향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과제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이고 지시적일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이론의 주요개념인 경계선 또는 위계에 대한 의미 및 범위를 결속력을 자랑하는 우리의 끈끈한 가족관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한국인 부부상담에 대한 초점

한 사회의 문화차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그 사회의 가족관계라고 주장한 Hsu(1985)에 따르면, 동아시아는 부자(父子)중심의 가족관계가 주류를 이루는 사회이고, 서구사회는 부부중심의 가족관계가 주류를 이루는 사회라고 한다. 가족 내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역할, 기능이 각각 다르게 되며, 나아가 모든 인간관계나 조직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핵심적인 2자

의 가족관계 속성이 투사되거나 확대된다. 다시 말하면, 각기 다른 2차 관계가 생활의 모든 영역에 투사되어 그 사회의 문화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자중심의 가족관계가 팽배해 있는 사회이다. 유교가 전래되기 이전부터 혈연을 중시하는 무속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부자중심의 사회였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는 서양에서처럼 부부를 근간으로 한 배타성, 단절성, 평등성, 성욕성과 같은 성질을 띠기보다는 부자를 근간으로 한 포괄성, 연속성, 서열성, 비성욕성과 같은 속성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생활에서의 갈등요인으로는 성격의 차이, 배우자의 외도, 성생활의 불만, 생활양식의 차이 등을 꼽는다. 그런데 한국에서 실제 부부의 갈등을 상담에서 다루다보면, 그 갈등이 상대방 자체의 개인적인 특성 때문이라기보다 부모나 형제 같은 주변 인물들과의 부조화 때문인 경우가 허다하다. 즉 갈등 문제가 부부 두 사람간의 불만 또는 소원함 때문이라기보다 각자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소홀함 때문인 경우가 허다하다.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배우자 선택을 당사자에게 맡기기보다 부모가 관여하여 가족의 일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부부는 남편과 아내로서 뿐만 아니라 직계가족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지향적인 문화에서는 무엇보다 한 개인의 독립성 내지는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하여 부부 및 가족 상담에서도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개인내적 요인을 강조하면서 원가족으로부터의 문화에 초점을 맞춘다. 서

양에서의 상담목표는 자율적인 개체화를 이룩하도록 돕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상담자의 태도는 주로 개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수용하고자 한다. 그렇게 해야 내담자는 자기 내부에 있는 분노를 풀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켜 자유롭게 기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며 특히, 가족주의적 특성을 지닌 우리사회에서는 상호의 존과 협동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도리라는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부부의 갈등문제를 원만히 풀어줄 수가 있다고 본다(장성숙, 2004).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주로 개인의 내적상태에 역점을 두어 상담했을 경우, 설사 내담자의 내적균형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관계상의 만족이나 적응과는 별개일 수 있다. 즉 각자 자신의 자리에 따른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우리사회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젊은이가 결혼하면 핵가족으로 독립이나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하는 우리 사회의 요구에 예민해야 한다. 나아가 상담자는 가족 및 부부간의 갈등문제를 다룰 때 각자가 주위로부터 기대 받는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그러한 역할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상담자는 부부상담에서 부부간의 친밀성에 대한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 다양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납득하고, 수용하며,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적극 돕거나 이끌어주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친인척간의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

문에 배우자로서의 역할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물론 삶을 제대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이라는 두 축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위치에 따른 역할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개성과 자유가 억압되는 경향이 있고(조운경, 2003),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외로움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어디에서든 원만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확립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균형 있게 발달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상담자들은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기보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중해 내담자의 내적상태를 살피는데 주력해왔다고 본다.

부부상담 사례

한국적 상담모형으로 본 발표자에 의해 제시된 현실역동 상담접근에서는 무엇보다 사례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장성숙, 2000). 현실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내담자가 보고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심리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삶이 이루어지는 전체적 맥락 속에서 문제를 설정하고 처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역동 상담접근에서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문화적 관점을 중요시 한다. 앞서 논의되었듯이 기존의 주요 상담이론들은 서구사회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달된 것들로 상당 부분 그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들이다. 즉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듯이 그 이론들이 문화보편적인 원리들로만 구성되어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제 우리 상담자들은 기존의 상담이론이 지닌 문화보편적인 원리는 적극 받아들이되 우리의 문화특수적인 가치들에 대하여서도 새롭게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현실역동 상담 접근을 시도하는 상담자는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갈등을 내적 역동에서뿐만 아니라 대외적 인간관계에서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담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통해 내면의 균형을 잡아주되, 그 못지않게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상담자는 치료자로서 뿐만 아니라 부모나 스승처럼 즉, 어른으로서 기능할 때 내담자를 최대한으로 도울 수 있다고 본다. 바로 이런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상담자는 필요하다면 설득, 자극, 직면, 예시 등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을 적극 동원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상담자의 가치는 그 사회의 문화 및 정서에 뿌리를 두면서 보편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은 우리사회의 가족관계에서 흔히 접하는 갈등들을 담은 사례들이다. 각 사례를 통해 부부갈등을 현실역동 상담접근에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사례

부부 사이에 갈등이 고조될 대로 고조되어 남편은 이혼을 하겠다고 나서자 아내는 어떻게든 이혼을 막아보려는 생각에서 상담자를 찾았다. 갈등의 주된 원인은 남편이 본가에 간헐적으로 큰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아내가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이제 남편이 원가족과 분리해서 돈을 모아 잘 살아보

자는 것이었고, 남편은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자기만 대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장남으로서의 구실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침 남편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수입이 꽤 있는 사람이었고, 아내에게 경제적 이유로 고생을 시키지는 않을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수차례 말을 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아내가 극구 반기를 들자, 결국 남편은 아내에게 성격차이로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다며 이혼을 제안한 것이다. 이 사례에서 본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부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겠다면 아내가 속상해하는 심정을 읽어주면서도 이혼을 해서 아내나 자녀에게 득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아내에게 남편이 원가족에게 진 빚을 갚고자 하는데 굳이 말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역점 두며 상담을 했다.

둘째 사례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아직도 불편한 상태에 있던 어떤 부인의 하소연은, 친정 오빠네 가족과 함께 놀러 갔다가 오빠의 실수로 사고를 당했는데 오빠네 가족은 멀쩡한 반면, 이 부인의 가족들은 크게 다쳐 아이도 한 명 죽었다고 했다. 그 후 남편은 아내가 친정 식구들과 교류하는 것조차 차단시키며 울분을 터트리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너무 힘들어진 부인은 더 이상 남편의 태도를 견딜 수 없어 상담을 신청했다. 여기에서 상담자는 부인이 하소연하는 남편의 태도에 대한 문제 이외에 주변상황을 살피면서 보상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물었다. 그러자 그 부인은 보험문제가 아직도 미결상태라고 말하며, 그러지 않아도 친정오빠가 얼마 전에 그것 때문에 전화를 하면서 보험회사의 조

율이 될 끝났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자, 남편은 그까짓 돈을 받아서 뭐하겠느냐며 받는 즉시 찢어버리겠다고 난리를 쳤다는 것이다. 부인의 이러한 이야기에 본 상담자는 사고를 내 사람이 남이 아닌 인척인 처남이기 때문에 일이 꼬이게 된 것 같다고 일러주었다. 즉 남편은 드러내놓고 보상을 요구하거나 협상하기도 어정쩡한 상태에서 일처리가 신속하게 되지 않으니까 더욱 광분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나도 힘들다며 따지거나 호소하기에 앞서 오빠에게 보상처리를 빨리 서둘러달라고 재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라고 일러주었다.

셋째 사례

혼수문제로 인한 갈등을 겪는 어느 부인의 하소연은, 비용이 많이 드는 혼수는 허례허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조출한 혼수에 시시때때로 트집을 잡는 시어머니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어머니에 대한 이러한 불만이 증간역할을 해주지 않고 방임하는 남편에게 발산되자 심각한 부부 갈등으로까지 비화되었다. 이에 대한 본 상담자는 넉넉한 혼수를 기대하는 시어머니를 나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고 했다. 즉, 자식의 혼례 때 친인척에게 그동안 빚진 것을 갚고자 하는 것이 상부상조하거나 나눔에 대한 우리의 풍습이었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자식을 보란 듯이 키운 공로에 대하여 보상받고 싶어 하는 것이 고생했던 여느 시어머니의 심정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 많은 혼수를 기대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허례허식이라고 몰아붙이는 태도는 합리적인 것이라기보다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의 고충이나 애환을 너무나 몰라주는 각박한 것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넷째 사례

노부모의 봉양문제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어느 부부의 사연은, 부모가 재산을 셋째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다 날리고서 둘째인 자기네 집에 와서 살고자하니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굳이 가려면 큰아들의 집으로 가야지 왜 자기네 집으로 오느냐하는 것이 부인의 불만이었고, 남편은 이러한 부인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다. 사실, 이 부부에게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이 없는 것이 문제여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본 상담자는 인간관계의 기본 뿌리는 효(孝)로부터 비롯한다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해시켰다. 즉 노부모에 대한 봉양이 부부간의 소원한 관계를 극복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에게 간곡하게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그러한 수고를 부인에게 맡기려면, 기술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나아가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자극하여 그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산교육이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사실, 우리문화의 중추개념인 가족주의는 그 뿌리를 효(孝)에 두고 있는데, 개인주의가 강조되면서부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효(孝)가 경시되어 사회가 점점 삭막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상담자는 내담자가 호소하는 국부적인 문제나 갈등만 풀어주는 상담자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섯째 사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은 이혼을 하려 했다. 그러자 손주들의 앞날을 걱정하던 시어른들은 이혼을 감행하기 전에 상담을 꼭 받아

보도록 간곡히 권유했다. 이렇게 하여 부부를 만난 본 상담자는 오히려 남편의 실책을 집중적으로 밝히면서 화합을 이루어내지 못한 쌍방의 책임을 물었다. 즉, 남편에게는 자신의 성취에만 충실한 나머지 아내를 방치했다고 꼬집었고, 아내에게는 자신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합당한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다. 이러한 상담자의 접근이 어느 정도 수용되는 듯하자, 상담자가 제시한 안은 자식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서로의 허물에 대하여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견디는 것이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렇게 하자 그 부부는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이혼을 하려했던 점을 부끄럽게 여기며 묵직한 심정으로 되돌아섰다.

이렇게 몇 개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현실역동 상담접근에서 역점 두는 것은 실제 삶이 영위되는 현실에서 관계를 어떻게 잘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돕느냐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역할을 강조한다고 하여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역동이나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상담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현실역동 상담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존의 상담접근에서 간과했던 문화변인을 인식하고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며 상담을 할 때 보다 상담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관계주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고병익 (1996). *동아시아의 전통과 변용*. 서울: 문학과 지성사.

- 박영신, 김의철 (2004).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서울: 교육과학사.
- 박일영 (1999). *한국 무교의 이해*. 서울: 분도출판사.
- 송성자 (2005). *한국가족문화와 가족치료접근*. 한국사회복지논총, 10, 45-64.
- 신월균 (1996). *한국의 민속사상*. 서울: 집문당.
- 옥선화 (1998).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I: 서울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 가정학회지*, 36(11), 157-183.
- 윤호균 (2001). *고사, 집착 그리고 상담: 상담 접근의 한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1-18.
- 이광세 (1998a). *유교를 다시 생각한다*. 동양과 서양; 두 지평선의 연합. 서울: 길.
- 장성숙 (2000). *현실역동상담: 한국인의 특성에 적합한 상담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17-32.
- 장성숙 (2004). *한국문화에서 상담자의 초점: '개인중심' 또는 '역할중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15-27.
- 조금호 (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들*. 서울: 나남출판
- 조금호, 김은진 (2001). *문화성향과 동조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39-165.
- 조용현 (2002). *사주 명리학 이야기*. 서울: (주)생각의 나무.
- 최상진 (1997a). *당사자 심리학과 제3자 심리학: 인간관계 조망의 두 가지 틀*.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엄 발표논문집, pp. 131-143.
- 최상진 (2002).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
- 최준식 (1998).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서울: 사계절
- 통계청 (2004). *인구동태통계연보*
- 한규석 (2002).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홍일식 (1996).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 서울: 정신세계사.
- 한성열 (2005). *한국인의 문화특수성: 가족관계로 본 한국 문화의 특성*. 한국 문화의 특성과 상담,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제5회 학술심포지엄.
- 함인희 (2001). *한국 가족사의 변화*. 하용출판. 서울대학교출판부.
- 황금중 (2002). *한국 교육사상 전통의 이중구조, 한국사상과 문화*, 15, 270-317.
- Choi, S. C. (1998). The third-person psychology and the first-person psychology: Two perspectives on human relations.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25, 239-264.
- Corey, G. (1999).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6th Ed.). Pacific Grove, California: Brooks Cole.
- Fiske, A. P., Kitayama, S., Markus, H. R., & Nisbett, R. E. (1998). "the cultural matrix of social psychology". D. T. Gil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 2. 915-981). Boston, MA: McGraw-Hill.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Ho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ill.
- 나은영, 차재호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사.
- Hsu, F. L. K., Marsella, A. J., & DeVos, G. (1985). *Culture and self: Asian and Western*

- perspectives* . Tavistock publications.
- Kim, B. S. K., Atkinson, D. R., & Umemoto, D. (2001). Asian cultural values and counseling process: Current knowledge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Counseling Psychologist*, 29, 570-603.
- Kim, Y. A. (1991). *Han: from brokenness to wholeness* . A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at Claremont.
- Matsumoto, D. (2000). *Culture and psychology: People around the world* (2nd. Ed.), Belmont, CA: Wadsworth.
- Miller, J. G. (2002). Bringing culture to basic psychological theory-Beyond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omment to Oyserman et al. (2002). *Psychological Bulletin*, 128, 97-109.
- Oyserman, D., Coon, H. M., & Kemmelmeier, M. (2002).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128, 3-72.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Boulder. Col: Westview Press.

KCI

Marriage Counseling in Korean Culture: Reality Dynamic Counseling Approach

Chang, Sung-sook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ercentage of divorce has increased rapidly even in Korea where traditionally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a family. However most counselors apply counseling theories and approaches developed in the West when they do counseling for Korean couple. In fact, the culture of Korea carries characteristics of relationism under the Oriental religion like Shamanism, Buddhism, and Confucianism. Therefore it is not easy to gain sufficient counseling effect in Korea with such major counseling approaches. The Korean takes a serious view of family relations between father and son, Therefore the Korean society carries on a family line, devotes their lives to the cause of education, gives precedence to the elder. In such a cultural area, it would be quite helpful for counselors to focus their attention on various roles of each rather than focus on their conflict of intimacy itself.

key words : familism, husband-wife centered, father-son centered, individual, role